

건강 칼럼

산모들이 알아야 할 '신생아 피부 트러블', 무엇이 문제일까?

신생아 얼굴과 몸에 피부 발진이 나타나다면 부모는 덜컥 겁이 나기 마련이다. 가렵지 않을까, 흉터가 남진 않을까 걱정될 수밖에 없다.

신생아에게 나타날 수 있는 피부 발진은 다양하다. 종류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되기도 하고, 전문의 진료가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다. 산모나 예비산모들이 알아두면 좋을 신생아 피부 발진의 종류와 증상에 대해 살펴보자.

▲중독성 홍반, 전신의 붉은 발진 신생아 중독성 홍반은 아기 전신 피부에 여러 개의 붉은 색 발진이 튀어나온 것을 말한다. 만삭아 중 31~72%에서 발생하며, 손발바닥을 제외한 전신에 생길 수 있다. 보통 출생 후 1~2일내에 나타났다가 5~7일 사이에 사라진다.

크기는 약 1~3mm이며, 다발성으로 주변부가 빨갛게 보이고, 고름이 찬 물집처럼 변하기도 한다. 7일 이후에도 증상이 점점 심해지거나 크기가 3mm를 넘는 경우에는 다른 피부 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 호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

▲여드름, 얼굴에 나타나는 발적 초기에는 얼굴에 빨갛게 점처럼 튀어나오다가 노랗게 고름이 찬 것처럼 진행되고, 주변에 발적이 생기는 것을 신생아 여드름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생후 3~4개월 남아에서 남성호르몬이 과증식되어 피지선을 자극해 발생하며, 얼굴에 전형적인 여드름 양상으로 나타난다. 생후 1년쯤 되면 사라지지만 3세까지 지속되기도 한다. 호전을 보이지 않는다면 흉터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봐야 한다.

▲연어반, 눈주위, 목뒤의 붉은 반점

연어 색과 비슷한 붉은 색 반점을 연어반이라 부른다. 한 개 또는 여러 개가 가지를 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신생아 중 40~60%에서 생김며, 눈꺼풀, 미간, 목 뒤 중앙 부위에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 두피, 코, 입술 등에도 나타날 수 있고, 1~2년 이내에 사라진다. 연어반이 목 뒤에 있다면 드물게 지속되기도 한다.

▲칸디다 피부스침증, 살이 맞닿는 곳의 발적

칸디다로 불리는 곰팡이가 원인인 칸디다 피부스침증(간찰진)은 건강한 아이에게도 발생한다. 서혜부, 겨드랑이, 목, 손가락 사이처럼 살

이 마주치는 부위에 발적이 생김 뒤 주변에 인설(피부에서 하얗게 떨어지는 살갓속 부스러기)을 동반한 구진 또는 작은 수포 형태로 나타난다. 칸디다 피부스침증은 국소 항진균 연고를 발라줘야 하므로 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좋다. 병이 나은 후에도 재발되지 않도록 피부관리에 신경써야 한다.

▲아기머릿기름떡지, 머리의 하얀 각질 덩어리

아기머릿기름떡지는 지루성 피부염의 일종으로 무증상의 비염증성 각질이 침착되는 질환이다. 출생하면서 머리에 하얀 덩어리가 붙어있고, 점점 많아진다. 머리기타, 눈썹, 이마, 뺨에도 생길 수 있다. 수주 또는 수개월에 걸쳐서 저절로 사라진다.

오일이나 아기용 샴푸로 각질을 부드럽게 만들고, 자극적이지 않은 칫솔 또는 빗으로 문질러서 조금씩 제거하면 된다. 아기머릿기름떡지가 광범위하게 나타나면서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케토톨라졸 크림 또는 샴푸가 사용될 수 있다.

독자제언

실종 예방, 이렇게 해봐요

매년 아동과 치매 노인인 대한 실종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실종 신고는 42,992건이 접수되었고, 2017년에 비해 10%가 증가하였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실종을 방지하고, 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 미리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는 제도이다.

2019년 2월 기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문 사전등록을 했을 경우 실종 시 발견소요시간은 8세 미만의 아동은 35분, 지적장애인은 60분, 치매 환자는 43분으로 실종부터 발견될 때까지 평균 소요시간은 46분이 소요된다. 하지만 지문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발견소요시간은 아동의 경우 126배, 지적장애인은 72배, 치매 환자는 1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문 등 사전등록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과 치매 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이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안전 Dream(www.safedream.gov.kr) 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서 할 수 있으며, 지문을 등록하려면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

참고로 아동의 경우 성장하면서 얼굴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사진을 업데이트 해주는 것이 좋다.

실종은 잠깐의 부주의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문 등 사전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이번 기회에 등록하기를 바란다.

최혜진 교정경찰서 경무계 순경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알바니아 시위대 "새로운 대선 실시"



2일(현지시간) 알바니아 수도 티라나 거리에서 반정부 시위대가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고 있다. 알바니아 야당을 지지하는 시위대는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요구하며 다시 거리로 나섰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전북도의 분발 있어야

지금은 전북도의 분발이 요청되는 때이다. 지역의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는 작금이다. 전북도는 도내 인구가 줄고 있는 이유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탓에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도민들의 1인당 총소득이 전국 꼴찌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는 지 궁금하다. 산업구조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요구의 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은 그래서이다. 따라서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한 목록을 보아야겠다. 현안들 중에는 구체적인 작업이 없이 세월만 보낸 것들이 적지 않다.

전북도는 지역 발전 의지를 다져야 한다. 보다 많은 예산을 정부로부터 타내야 한다는 주문이다. 역대 정부 내내 사업추진을 건의 해보고 안 되면 뒤로 물러나기 몇 번이었는데, 그것은 현 정부 들어서도 오십보백보 수준이지 않다. 전북도는 발전 현안 그대로의 발전 의지를 다져야 한다. 도민의 요구를 반드시 성취시키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나가야 한다. 전북도에겐 뚜렷한 행보를 요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무슨 현안이고 추진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지금 지역 발전 사업의 맨 앞장에 있는 새만금만 해도 그렇다. 내부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자면 답답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보도를 보니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을 것인지 기대가 된다.

전북도는 새만금 현장을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민간투자 개발 방식으로 인해 새만금 매립 공사가 하세월의 기다림만 보여주었다. 이제 예타 면제로 올해부터 내부 매립 사업이 본격 추진될 거라는 소식이다. 그래서 2024년까지 부지 조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그것은 들던 중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전북도는 긴장해야 한다. 현 정부는 각 광역 지자체마다 큼직한 예산 예산 예산을 이미 안긴 바이다. 실제 예산을 태내기까지 무슨 변수가 있을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전북도는 우리 지역이 웰빙 고장이라고 여러 차례 공표해왔다. 그 공표가 설득력이 있는 것이 되게 하려면 더 뛰어야 한다. 웰빙 고장이나 아니냐는 소문이 말을 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북도가 힘을 쏟는 주목적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경제 현안을 챙기고 있다 해도 그 소득과 관련이 없거나 있어도 미미하다면 도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할 수밖에 없다. 또다시 말하거나 전북도는 더욱 분발해 도민들에게 희망의 근거를 보여 주어야겠다.

전북의 농업 경쟁력 더 강화해야

전북도에겐 할 말이 있다. 농업 경쟁력을 더 강화해야겠다. 전북도가 삼락농정의 효과를 여러 번 발표했지만 그래도 만족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 농가 소득이 올랐지만 농민들의 경기 체감은 예전 그대로이다. 이같은 사실은 전북도의 삼락농정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쩌다 농촌 환경이 좋아졌다고 보도할 때도 있었지만 모든 농촌에 해당되는 풍경은 아니다. 도내 농촌 인구가 늘지 않고 있음이 그것을 단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농촌 인구가 현상 유지라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여전히 희망 사항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농업의 전망이 밝다고 외쳐봤자 경쟁력이 없거나 약하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그러나 경쟁력이 지금과 같지 않고 훨씬 더 강화 된다면 미래가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농촌 인구가 유출되는 중에도 귀농하는 젊은이들이 더러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희망의 불씨가 있다. 전북도는 잘

생각해야 한다.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밀해야 한다. 전북도가 대도약을 향한 농생명 R&D 전략 세미나를 최근에 개최한 것은 그러한 의지의 발현이었을 터이다. 도지사도 연구 인프라 사업 발굴 등에 집중투자하겠다고도 했는데 그 또한 그러한 의지의 발현이었을 터이다.

그렇다. 전북도는 삼락농정에 힘을 기울였으므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더 마음을 써야겠다. 전북 지역은 전통적으로 오랜 농도였으므로 그 이름값을 해야 한다. 한국 농업의 선두 주자의 자리를 확실히 해두자는 담부이다. 여기 조금 비켜가는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나 지난날 청와대에 남품했던 군산의 철새도래지 쌀을 비롯해서 정음의 단종미인쌀 등 우리 고장 쌀의 품질이 우수함이 지난 십수 년 간 입증됐던 걸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소비 시장에서 확대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전북도는 농생명 산업 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농업 경쟁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